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공부하러 여기 왔다. 너희들은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공부할 때는 대개 눈을 뜨고 한다.

**질문:** 신봉의 길에서 신봉자들이 가지는 어떤 습관을 너희 자녀들은 가질 필요가 없느냐?

**대답:**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인의 형상 앞에 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빌며 청한다. 그들은 무언가를 구하는 습성이 몸에 났다. 그들은 락쉬미와 나라얀 앞에 가지만,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이제 너희 자녀들은 이런 습관이 없다.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형상이 없는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득을 본다.

움 산티. 움 산티. 영적인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 영적인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이것은 학교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림이나 육신의 존재들을 볼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모든 이를 보는 동안에도 너희의 지각은 이미지 없는 분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항상 선생에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생에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 선생이 질문하면 학생들은 "제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 공부는 독특하며, 이것은 독특한 학교다. 가르치고 계신 분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크게 뜨고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 학교에 간 아이들이 선생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느냐?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두 눈을 감고 앉은 채, 염주 등의 구슬을 돌리곤 했다. 현자들 역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그들은 여자들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데, 마음이 혼란해질까 봐 그러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세상은 타모프라단이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비록 몸을 보긴 하지만, 이미지가 없는 분을 기억하느라고 지각으로는 바쁘다. 육신을 보면서 이미지 없는 분을 기억하는 현인이나 성자는 아무도 없다. 바바가 이 수레 안에 앉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가 말한다. 모든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다; 육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영혼이 듣는다. 영적인 지식, 또는 육신의 지식을 듣고 말해주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육신의 선생이 된다. 너희들은 몸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공부하지만,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영혼이다. 좋고 나쁜 산스카라를 혼습하는 것은 영혼이다. 육신은 결국 재로 변한다. 인간은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나는 아무개다, 나는 국무총리다"라는 육체의식을 갖는다. 그들이 "영혼인 내가 국무총리인 이 몸을 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영혼이 한다는 것은 오직 너희만 아는 것이다. 영혼은 불멸한다. 너희들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 너희는 여기에서 몸을 받았다. 몸 안에 영혼이 없으면, 육신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것은 거기에 놓인 한낱 시체다. 이 두 눈으로는 영혼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미묘하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의 지각으로 아버지를 기억해라. 시브 바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의 지각에 들어 있다. 이것 역시 이해해야 할 미묘한 사안이다. 일부는 매우 잘 이해하는 반면, 나머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해야 할 것은 그저 이 정도뿐이다. 알파는 신, 바바를 의미한다. "신" 또는 "이슈와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지금 이때에 사람들이 창조주 아버지를 모르고, 창조의 시작, 중간, 끝을 모르는 때문에 모두가 둘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의 역사와 지리는 계속 반복된다. 지금은 합류시대다.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지만, 전에는 너희 역시 이것을 몰랐다. 바바가 지금 너희를 지식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가자마자, 마야가 너희를 먼지 바닥에 굴려 지식의 장식을 망쳐 놓는다. 아버지가 너희를 꾸며 주지만, 너희 역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일부 자녀들은 마치 전혀 장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이 사납게 말을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는다.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공부에 그다지 마음을 쏟지 않는다. 그들은 공장에서 일해서 부유해진다. 그들은 아무 것도 공부한 게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높은 공부다. 공부하지 않고는 너희가 미래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공장에 갈 필요도 없고, 일을 해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오직 불멸하는 소득만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가 빈 손으로 간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아무 것도 손에 가져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양손에 가득 들고 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수입이라 불린다. 이것이 21생 동안에 위한 너희의 진정한 수입이다. 오직 무한한 아버지만이 너희가 진정한 수입을 벌 수 있게 해준다. 너희 자녀들은 이 이미지를 보는데, 그러나 너희 역시 영혼이고, 영혼들은 자기 아버지만 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지 없는 아버지를 기억한다; 너희는 그와 공부한다. 너희들은 영혼이나 지고의 영혼을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지각으로 안다; 영혼인 나는 불멸하며, 이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아버지는 그 앞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영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으로 알아차린다. 지금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다; 이것에는 아주 조금의 거짓도 없다. 너희들은 진리의 나라의 마스터들이 되고 있는 반면, 이것은 거짓의 나라다. 철시대는 거짓의 나라이고, 황금시대는 진리의 나라다. 그 사이엔 밤과 낮의 차이가 있다. 황금시대에는 슬픔이 아예 없다. 그 이름부터가 행복의 나라다. 오직 무한한 아버지만이 너희를 행복의 나라의 주인들로 만들 것이다. 그에겐 형상이 없는 반면, 다른 존재는 모두 형상이 있다. 그 영혼의 이름이 바뀌겠느냐? 그의 이름은 언제나 시바다. 다른 이들 모두가 영혼이라 불리며, 그들의 이름은 욕신에 붙여진 것이다. 시바링검은 무체인 분을 상징한다. "지식의 대양, 평화의 대양"은 시바에 대한 찬양이다. 그는 또한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을 것이다. 피조물이 피조물에게서 유산을 받진 않는다. 창조주가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것이다. 자식을 둔 사람이 자기 형제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겠느냐? 여기에서도 역시 무한한 아버지는 그의 무한한 자녀들에게 유산을 준다. 사람들이 공부해서 변호사 등이 되듯이, 이것도 공부다. 사람들의 요가는 그들이 하는 공부, 그리고 가르치는 이에게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너희를 가르치고 계신 분은 이미지가 없다. 너희 영혼들 역시 이미지가 없다.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또한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는 단 한번만 와서 너희를 가르친다. 공부를 하는 것은 영혼이다. 욕신을 통해서, 영혼이 행복과 슬픔을 경험한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아무리 그 몸을 흔들어도 마치 먼지를 흔드는 것과 같다. 아버지가 거듭 너희에게 설명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아버지를 기억해라. 바바는 너희가 등수대로 모든 것을 훈습한다는 것을 안다. 일부는 참으로 붓두(어리석은 자)여서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지식은 아주 쉽다. 모든 것을 영혼에게 설명하므로, 심지어 장님이나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 부자유자라도 이해할 수 있다. 영혼은 지체부자유자가 되거나 다리를 절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욕신이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에게 매우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런데도 신봉의 길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던 버릇을 여기에 와서도 똑같이 한다. 그들은 마치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말한다: 눈을 감지 말아라.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동안에 시각에는 아버지를 간직해라. 오직 그럴 때에만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매우 쉽다! 그런데도 너희는 “바바, 저는 당신을 기억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아! 그렇지만 유한한 유산을 물려주는 욕신의 아버지를 너희는 죽을 때까지도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영혼의 아버지인 이 무한한 아버지를 너희가 기억할 수 없단 말이나!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다: 오 신, 아버지여, 저를 인도해 주소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버지는 단 한 명을 위한 안내자가 아니다. 그는 무한한 안내자다. 그가 단 한 명만 해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와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푼다. 모든 이를 평화의 나라로 보내려고 내가 왔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는 무한한 아버지다. 저 사람들은 유한 속으로 들어와 계속 말한다: "나에게! 나에게!" "오, 신이여, 제게 행복을 주소서! 제 슬픔을 없애주소서!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가 말한다: 무한한 낯은 세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새 세계에는 신인들이 산다. 매 5천년마다 너희가 완전히 불순해지면 내가 온다. 이것은 사악한 사회다. 진리를 말하는 사트구루는 단 한 분뿐이다. 오직 그분 하나만이 아버지, 선생, 사트구루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 어머니들이 천국의 문을 열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는 말도 쓰여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이다. 바바가 이제 너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불순한 자들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돌아가려고 내가 왔다. 이제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잘려져 나갈 것이다. 모든 이에겐 단 한 가지만 말해라: 아버지가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 세계를 정복해라. 나는 너희 모두에게 세계의 주인들이 되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락쉬미와 나라얀을 숭배한다. 그들은 락쉬미에게 재물을 달라고 한다; “건강과 긴 수명을 주십시오”라고 하진 않는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 너희들의 수명은 매우 길어진다. 이제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건강, 재물, 행복. 저 사람들은 그저 락쉬미에게 자갈과 돌만 구하지만, 그것마저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버릇이 들었다. 그들이 신인들 앞에 가서 뭔가를 달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아버지에게 아무 것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한다: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주인들이 될 것이고, 세계의 사이클을 앎으로써 너희는 지구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신성한 미덕들도 훈습해야 한다. 아버지에게서 천국의 유산을 받고 있으므로 너희가 이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그들을 숭배하겠느냐? 너희 자신이 바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 너희가 5원소를 숭배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는 세계의 주권

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사원 등에 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 모든 것은 신봉의 길에서 만든 장치들이다. 지식에서는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라는 단 한 가지 표현만 있다. 그게 전부다. 이 기억을 통해 너희의 죄가 잘려 나갈 것이고 너희는 사토프라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미덕으로 가득했었고, 이제 다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돌 지각을 지닌 자들 때문에 무척 고심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현인들이나 성자가 아닌, 오직 한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분은 신이 아니다. 그는 이제 여러 생 중에서 마지막 생의 끝에 있다. 내가 84생을 완전히 마친 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는 마을의 사내아이였다. 그 다음 그는 아름다운 데서 추하게 되었다. 그는 완전한 시골 머슴애였다. 그 다음 그가 약간 평범해졌을 때 바바가 그에게 들어갔는데, 용광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누가 저들을 모두 먹여 살릴 것이냐? 그래서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 자신이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의 여러 생 중 마지막 생에 그에게 들어간다. 그가 가장 불순해졌고, 그 다음 가장 순수하게 될 것이다. 그는 84생을 취했으며, 너희도 마찬가지다; 단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 태양 왕조와 달 왕조의 일부가 될 이들만이, 자신이 노력한 데 따라서 등수대로 여기 온다. 나머지는 여기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나중에 올 자들은 약간의 지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려올 것이다. 앓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 실천 요지:

1. 아버지가 너희를 치장시켜준 장식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노력해라. 너희가 지닌 지식의 장식품을 마야의 흙먼지 속에서 망치지 마라.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불멸하는 수입을 벌여라.
2. 너희들의 앞에 있는 이 형상, 즉 이 육신의 존재를 보는 동안에도 너희 지각으로는 형상이 없는 아버지를 기억해라.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습관을 기르지 마라. 무한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축 복:**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집중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첫째로 들어가라.

아비약트의 역할일 때 온 영혼들은 마지막에 와서 빨리 가고, 빨리 가서 첫째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때의 중요성을 알고 너희가 이제껏 받아온 축복을 실제 형태로 옮겨서 실행해라. 이 아비약트의 부양은 너희를 쉽사리 강력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각자 원하는 만큼 많이 전진할 수 있다. 밥다다와 도구 영혼들은 모든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모든 영혼을 축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빠른 속도로 노력하는 행운을 쉽게 받았다.

**슬로건:** “무체이며 몸을 가진”이라는 위대한 만트라를 의식하면서 한결같은 요기가 되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